

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재난사고 예방에 총력



최덕기 포천소방서장과 전임 이재학 의용소방대장 등 내빈들이 신임 김관식 의용소방대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있다.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지난 25일 오전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환영선 포천시 부시장과 오병익·이상만 경기도의회의원, 이강립 포천시의회위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김관식 의용소방대장 취임식과 전임 이재학 대장의 이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김관식 의용소방대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진

다는 사명감을 갖고 화재 예방과 진압은 물론, 각종 재난 구호에 앞장서 단 한건의 재난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천소방서 최덕기 서장은 이임하는 이재학 대장에게 지난 2년동안 의용소방대를 이끌며 각종 재해예방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점을 들어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부교도소

의정부교도소(소장 김건휘)는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경비교도대원 및 직원 150여명이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이날 의정부교도소 경비교도대 내부반은 헌혈을 위해 대기하는 경비교도대원 및 직원들로 가득 메워졌으며, 헌혈에 참가한 이들은 자신들의 헌혈이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쓰인다면 더없이 좋겠다고 환한 웃음을 보였다.

김건휘 의정부교도소장은 "의정부교도소 소속 직원과 경비교도대원들이 사랑의 헌혈 운동 행사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교도소는 이번 헌혈 행사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어려운 수용자 가족 돕기, 농촌봉사활동 등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관인면 녹색농촌·슬로푸드 체험마을 벤치마킹 전통재래식품 제조 체험관 건립 위해 추진

관인면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재래식품 제조 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지난 24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녹색농촌·슬로푸드 체험마을 3곳을 견학했다.

이윤기 관인면장과 김종용 포천시의회의원, 이수기 관인농협조합장, 윤효준 관인면개발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견학은 양평군농업기술센터의 안내에 따라 녹색농촌 체험마을인 양평군 청운면 신희리, 양서면 양수리와 슬로푸드 체험마을인 용문면 연수리를 방문해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방법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관인면 견학단은 활발하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각 마을별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방안 주요시설현황 및 애로사항 등 현 지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각 마을의 특성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윤기 관인면장은 "이번 견학은 관인면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재래식품 제조 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계획했다"며 "사업의 성과 거양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토의시간 등을 거쳐 장점을 사업방향과 연계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인면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3억9천4백만원을 확보, 전통재래식품 제조 체험관을 통한 관인면의 관광지자원 한탄강과 연계한 체험농촌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24일 녹색농촌·슬로푸드 체험마을을 견학하기 위해 양평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관인면 관계자들이 시설현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

우리 동네를 말한 다 19

소흘읍 송우 5리 이상 최용규

“리분할로 효율적 주민관리 필요”

소흘읍 송우5리는 포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9천여명의 인구가 밀집돼 단일 마을로는 포천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2003년부터 이장을 맡아오면서 크고 작은 마을일을 돌보고 있는 최용규(58) 이장을 만났다.

송우5리 마을의 옛 지명은 '갈뚝'로 최근까지 '추산'으로 불렸다. 최용규 이장은 지명유래에 대해 "우리마을은 옛부터 가을에 곡식을 쌓는 동네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 '추산'이다"며 풍요로운 마을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송우 5리에는 우정, 일신, 원일 1·2·3·4·5차, 송우연립, 동아주택단지 등 11월부터 입주 시작될 주공4단지 등의 아파트촌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3천여세대 9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송우5리 고등학교와 추산초, 신철면 대경중학교 등 교육시설 역시 마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이장은 "송우 5리의 인구는 포천관내 관인, 영중, 장수 등 보다 월등히 많아 이상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지났다"며 "소흘읍도 하루속히 리 분할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원래 60~70세대가 모여 살던 작은 시골마을이었다고 한다.

최 이장은 "1990년도부터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며 "아파트가 들어서자 원주민들은 보상을 받아 2분의1 정도는 보상을 받아 타지로 방출된 상태이고 현재는 40여세대의 원주민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연말 완공된 주공4단지는 1천5백세대 규모로 현재 4백여세대가 입주된 상태에서 송우5리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며 "현재 송우5리의 아파트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유입이 3분의1 정도이고, 나머지는 3분의2는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앞으로 외부유입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외부 유입인구 중 지난해 입주한 탈북주민에 대해 최 이장은 "탈북주민 100여세대가 지난해 입주했다"며 "마을주민들도 아직 본격적인 접촉을 한



송우5리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용규 이장.

사태가 많지 않지만,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에서도 본격적으로 탈북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어 실상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이장은 "일부 주민들이 탈북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흘읍도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이장은 송우5리의 방대한 인원을 각 아파트 단지 별로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회와 부녀회, 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발위원회는 마을 원주민 위주로 구성돼 과거에는 마을 안길, 가로등 설치 등에 관여했지만, 최근에는 역할이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우5리의 거대화로 인해 겪는 문제점에 대해 최 이장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마을회관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주민편의 시설의 조속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장은 주민들에게 "각계 각종 사람들이 송우5리에서 동거를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서로 배척할 없이 서로 화합하며 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읍·면·동장 2영북면 이문근 면장

행정수요조사 分析 통한 계획적인 면정 推進

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영북면 경제살리기 나서

1970년대 초 미군기지가 동부전으로 옮겨가자 전까지 영북면은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다. 영북면은 당시 거주하던 인구가 2만9천여명으로 실제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4만 5천명이 양태하는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의 영북면은 ▶법정리 7개리(대회산리, 문암리, 산정리, 소회산리, 아미리, 운천리, 자일리), 19개 행정리, 116개반 ▶인구현황은 총4천2백25세대 1만8백15명 거주(2004년 12월 31일 현재) ▶포천시 전체면적의 9.89%(인구 81,724명(농경지 14,160㎡, 임야 57,277㎡, 기타 10,293㎡) ▶면사무소 직원 19명(▷일반직 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8등급 1명, 9등급 1명), 일용직 3명 ▶재정규모 총 7억 8천1백54만7천원(인건비 8천1백2만9천원, 일반운영비 1억1천6백45만4천원, 예비 2천7백37만4천원, 업무추진비 9백77만원, 보상금 7천2백32만원, 자산취득비 8백60만원, 시설비 4백66만원) ▶학교현황 3개교(영북초, 영북중, 영북고) ▶기업체 29개소 분포(비료제조 3, 토목·건설 5, 식품제조 9, 석재 2, 가구 5, 기타 5) ▶자동차 총 3천4백74대(승용차 2천39대, 승합차 3백11대, 화물차 1천73대, 특수차 51대) ▶기타(식품점객업소 355개소, 공중위생업소 77개소,

군부대 10개, 축산현황 147개 농가·1백41만5천1백98두, 기초생활수급자 242가구·43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북면은 과거에 비해 지역경제가 열악해져 있고 발전의 요인이 시급하다는 이문근(51·사진) 면장. 31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문근 면장은 지난해 1월 1일 영북면장으로 부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문근 면장은 우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살기좋은 영북면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6매의 실문지를 통해 '영북면 행정 수요조사 분석'을 실시했다.

"이 조사는 최초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획됐었지만, 구체적으로 실시하다보니 2005년 영북면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실문조사를 통해 영북면 발전의 전략적 방안 수립의 필요성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문근 면장은 "실문조사는 ▶생활 실태 및 지역사회 인식 ▶공무원의 친절도 ▶면정 추진의 중점 방향 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산정호수의 문화관광적인 영향 ▶산업분야로 가로등문제, 축산농가의 환경

오염문제, 교통시설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이루어져 지난 1월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니 향후 면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문결과 영북면 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추진이 36건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었고 도로 확·포장이 34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18건, 가로등(보안 등) 관련이 17건, 농로 확포장이 14건, 교육관련 개선 11건 등의 순으로 의견이 도출됐다.

2005년도 영북면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권역별 개발 사업을 위한 토대 마련이다.

이문근 면장은 "실문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면정도 이제는 5년, 1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전까지 영북면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문근 면장이 추진하는 영북면 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영북면을 총 5개의 권역으로 나눠 ▶대회산리의 점경지역지원 예산지원을 통한 농촌관광단지 건설 ▶문암리와 아미리를 중심으로 유치원 산업단지를 통한 공업지역 ▶산정호수를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지역 ▶자일리를 중심으로

한 농업특화지역 ▶운천 시가지지를 중심으로 한 상권 형성이 골자다.

이문근 면장은 "5개 권역으로 나눈 종합개발계획을 실시하는 데는 영북면의 68.3%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12.6%를 차지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북면에는 대대급 이상의 부대가 10개소 중대급 이상의 부대가 2개소를 차지하는데, 이문근 면장은 군부대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1년에 2번씩 위문을 간다고 한다.

"영북면에 있어서 군부대는 정화활동과 대민지원 등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문근 면장은 주민들에게 "영북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집앞 농경소 등 사소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하며, 식당과 여관 등에서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주민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면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식개혁과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이문근 영북면 면장

21C 포장의 새바람 '은창수출포장'



- ★ 생산 품목
내수용, 수출용, 식품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다수
- ★ 박스 종류
골판지박스, 톨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대표 이희선

(주)은창수출포장 EUNCHANG.CO.KR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전화 : 031)534-5753~5/팩스 : 031)534-5756